철 든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철에 사랑을 더하면 도시는 얼마나 멋있어질까요?
철에 사랑을 더하면 생활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철강기업 세아,
철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찬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세아 ESAB 세아메탈 세아 M&S 세아네트웍스 세아로지스

SeAH

SEAH 2013 09+10

세아가족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PASSIONATE

09+10

SEP +OCT 2013

SeAH

CONTENTS

SEP+OCT 2013
VOL. 347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언제나 새로운 의미를 찾아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한 자아를 실현합니다.

세아의 두 번째 핵심가치 '열정'

열정은 세아의 가슴입니다.

〈세아가족〉 통권 347호 2013년 09+10호
발행일 2013년 10월 30일 **발행인** 김진규
발행처 세아홀딩스 **기획 · 편집** 세아홀딩스 02-6970-0093
디자인 · 제작 대통기획 02-2269-3613
표지촬영 Season2 Studio 02-538-9916
표지모델 한국번디 연구2팀 김종서 과장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SPECIAL SeAH

04 SPECIAL THEME 세아의 두 번째 핵심가치, 열정
06 REAL TALK 세아 ESAB 유덕상 대표와 사우들이 나눈 열정에 관한 대화
10 OUR HARMONY 세대공감, 나에게 열정이란?
14 THEME INTERVIEW 꿈을 향한 힘찬 로잉(Rowing), 김지호 코치
18 THEME IN SeAH 無에서 有를 창조한 뜨거운 열정, 1970년대 수출일화
20 SOMETHING ABOUT US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이름, 열정
22 QUOTABLE QUOTES 우리시대 열정의 아이콘
24 THEME STORY 꿈과 환상의 나라, 디즈니랜드

PASSIONATE

HIGHLIGHT SeAH

26 SeAH'S HISTORY 세아의 역사가 시작되다, 부산철관공업 탄생
27 ZOOM IN CI 오남용 사례 I
28 TEAM MISSION 목표를 향해 화살을 쏴라! 세아 ESAB 생산기술팀
32 HOT ISSUE I 세아제강, 외경측정장치 개발로 품질 신뢰도를 높이다
34 HOT ISSUE II 새로운 20년을 향한 Vinapipe의 도약

HIGH-FIVE SeAH

36 HIDDEN CHAMPION 명탐정 셜록 홈즈처럼 문제를 해결하다! 한국번디 연구2팀 김종서 과장
40 GLOBAL LEADER 열정가이의 좌충우돌 뉴질랜드 체험기
42 LOVE & COMPASSION 여름보다 뜨거운 젊음!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하계수련회
46 SeAH NEWS 세아뉴스
49 SeAH PEOPLE NEWS 사우동정
50 EPILOGUE 에필로그
51 SECRET NOTE 열정을 실천하는 나만의 노하우

熱情

뜨거운 마음, 열정(熱情)

열정(熱情)에는 '뭔가를 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의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진실로, 온 힘을 다해'라는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돋보기를 잘 쓰면 구름 낀 날에도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열정을 한곳으로 모으면 그 어떤 것도 녹일 수 있습니다.

세아의 두 번째 핵심가치이자 '세아의 가슴'인 열정.

지금, 내 마음의 온도는 몇℃인가요?

지금, 세아인의 열정은 끓고 있나요?

POSSIONOTE

세아의 두 번째 핵심가치이자 '세아의 가슴'인 열정. 그러나 열정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아인들이 핵심가치 열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각자의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세아 ESAB 유덕상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열정이란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

세아 ESAB 유덕상 대표와
사우들이 나눈 열정에 관한 대화

유덕상 대표가 말하는 열정의 정의

이승준 사원 열정이라고 하면 '지치지 않는 에너지', 또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유덕상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열정이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덕상 대표 평소 열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했고, 또 스스로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왔던 터라 이번 호 주제를 듣고 내심 기뻤습니다.(웃음) 저는 열정을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한 사우들 중에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모두 한번쯤은 경험해 봤겠지요?(웃음) 연애할 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보세요.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데이트는 어디서 할 지 찾아보고, 밤을 새워 편지를 쓰기도 했을 겁니다.

이 같은 행동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일까요? 또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처럼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순수한 마음, 즉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바로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는 열정은 뜨거운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열정은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그 가치를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순수한 마음, 즉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바로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는 열정은 뜨거운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열정은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그 가치를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의 기준, 열정

박창휘 사원 기업의 채용 기준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적이나 영어점수, 자격증보다도 도전정신과 열정을 먼저 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CEO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평가할 때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덕상 대표 많은 기업들이 열정을 채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회사도 지원자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정적인 지원자는 우리회사에 대해 공부하고 국내외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것인지를 준비해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자의 대부분은 대학 시절을 알차게 보냈고 전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더군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요. 따라서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실력과 스펙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진 지원자들이 입사한 후 좋은 성과를 내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서 인재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열정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선대 회장님들께서 보여주신 우직한 인내와 가마솥처럼 식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반세기 탄탄한 세아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정은 우리들이 계속 이어가야겠지요.

열정을 지속하는 노하우

이미나 사원 열정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어도 금세 의지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열정을 꾸준히 지속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유덕상 대표 저는 에너지가 소진되면 낯선 장소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상에 변화를 주고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젊고 자유로우니 여행을 많이 다녀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저의 노하우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독서와 교육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강의와 독서를 통해 열정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직장생활 속에서 열정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극할만한 요소를 많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 업무와 생활에 접목하는 시도를 계속 해본다면 열정의 습관이 몸에 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정은 세아의 가슴

이승준 사원 세아의 역사에서 열정으로 일군 성과나 일화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유덕상 대표 저는 창원공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故 이종덕 창업 회장님이나 故 이운형 회장님을 직접 뵐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선대 회장님들을 떠올리면 '가마솥처럼 꾸준한 열정을 지속한 분들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Passion)의 어원은 인내(Patience)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선대 회장님들께서 보여주신 우직한 인내와 가마솥처럼 식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반세기 탄탄한 세아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정은 우리들이 계속 이어가야겠지요.
세아 ESAB의 도전 일화 가운데 올해 초 계열사 최초로 도입한 C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BS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0개월 간 임원 · 팀장들과 매일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 적극적인 조직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CBS가 조직 문화로 뿌리를 내리도록 저 역시 열정을 다할 계획입니다.

'젊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세아인이 되어주길

박창휘 사원 마지막으로 세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유덕상 대표 삼국지에 '逢山開道 遇水架橋(봉산개도 우수가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와 같이, 그 어떤 난제도 열정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 부족'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00%의 힘을 내야만 무엇이든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젊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일과 인생에서 승리하는 세아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Mini Interview

세아제강 생산팀 이승준 사원
유덕상 대표님과의 대화를 통해 '열정은 순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많은 준비와 기다림, 즉 인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내를 피하지 않으며, 가마솥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열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세아메탈 생산혁신팀 박창휘 사원
가슴 속 열정이 다시 끓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00%의 힘을 내야만 진짜 열정을 실천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덕상 대표님의 말씀처럼 젊고 뜨거운 마음으로 일과 인생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세아인이 되겠습니다.

세아 ESAB 국내영업팀 이미나 사원
입사 이후 처음으로 유덕상 대표님과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4월 첫 출근할 때 가졌던 초심을 잊지 않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세아인이 되겠습니다.

Our Harmony

세대공감,
나에게 열정이란?

세아인은 열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필로 직접 작성한 답안을 통해
열정에 대한 각 세대별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20대

"열정이란 세아의 상징
'라이징 커브'다!"

세아베스틸 수출팀 신영재 사원

벌겋게 달궈진 무쇠를 상징하는 라이징 커브만큼 열정을 잘 표현한 것이 또 있을까요? 저는 라이징 커브처럼 뜨거운 삶을 살기 위해 '질투'를 적절히 활용한답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90

2013년 9+10월 세아가족 시험
'열정' 평가 고실

이름	신영재	나이	28
소속	개발사 세아베스틸 / 팀·파트 수출팀	직급	사원

제1교시

[객관식 1] 다음 중 가장 열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고르시오.

① 샘솟는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예술영역을 탄생시킨 피카소
② 99퍼센트의 땀과 노력으로 수많은 발명품을 개발한 에디슨
③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 완등에 성공한 엄홍길 대장
④ 늦은 나이에도 한글 배우기에 도전 중인 할머니, 할아버지

[객관식 2] 다음 중 열정을 식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움
② '이정도면 됐어' 타협하는 마음
③ '내일부터 하지 뭐' 미루는 습관
④ '네가 할 수 있겠어?' 외부의 시선

[객관식 3]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열정의 요소는?

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집요함
② 편안함을 거부하는 도전정신
③ 나의 꿈과 목표가 담긴 비전
④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객관식 4] 다음 중 가장 열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이 사원
② 어려운 일은 금방 포기하는 박 사원
③ 지금껏 해온 대로 대충대충 일하는 최 사원
④ 자신의 일 외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김 사원

[객관식 5]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은?

① 독서를 하거나 강연 · 세미나에 참석해 자극을 받는다
② 취미생활을 시작하거나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 재충전을 하고 돌아온다
④ 기타 :

[주관식 1] 객관식 3번 문항의 답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입사 후 나서 부모님께 안주하며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 능력, 업무 하면 하고 실패면 왜, 배우고 싶었던 일로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살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식 2] 세아가족 중 세아베스틸 (계열사)
구호팀 (팀 · 파트) 신영재 (이름, 직급)이가
'열정'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실 입사한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것이라는 단정 짓기 어렵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초심을 간직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다짐으로 저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주관식 3] 나의 '열정'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전문분야에 대한 열정은 업무를 발휘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구구에게도 뒤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관식 4]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열정적인 순간'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학창시절 '첫사랑'을 한 때 가장 열정적 였었던 같습니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여전 생활에 열정적으로 산 사는 하였던가 같습니다.

80

2013년 9+10월 세아가족 시험
'열정' 평가 고사

이름	박 요한나	나이	27
소속	개발사 세아해양학술장학재단 / 팀·파트	직급	사무원

제1교시

[객관식 1] 다음 중 가장 열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고르시오.

① 샘솟는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예술영역을 탄생시킨 피카소
② 99퍼센트의 땀과 노력으로 수많은 발명품을 개발한 에디슨
③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 완등에 성공한 엄홍길 대장
④ 늦은 나이에도 한글 배우기에 도전 중인 할머니, 할아버지

[객관식 2] 다음 중 열정을 식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움
② '이정도면 됐어' 타협하는 마음
③ '내일부터 하지 뭐' 미루는 습관
④ '네가 할 수 있겠어?' 외부의 시선

[객관식 3]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열정의 요소는?

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집요함
② 편안함을 거부하는 도전정신
③ 나의 꿈과 목표가 담긴 비전
④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객관식 4] 다음 중 가장 열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이 사원
② 어려운 일은 금방 포기하는 박 사원
③ 지금껏 해온 대로 대충대충 일하는 최 사원
④ 자신의 일 외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김 사원

[객관식 5]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은?

① 독서를 하거나 강연 · 세미나에 참석해 자극을 받는다
② 취미생활을 시작하거나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 재충전을 하고 돌아온다
④ 기타 :

[주관식 1] 객관식 3번 문항의 답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아직도 일을 하는데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그만큼 성공확률도 높아진다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관식 2] 세아가족 중 세아 홀딩스 (계열사)
모든 (팀 · 파트) 모든 분 (이름, 직급)이가
'열정'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
아직 같은 모르겠지만 ... 같은 분에서 팀원을 하고
계신 홀딩스 분들은 보면 일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맡겨진 해야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주관식 3] 나의 '열정'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해 막상
시작을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하려 하지만
시작하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주관식 4]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열정적인 순간'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국이나 국내에 관한 관심이
커서 혼자 국내로 여행을 다녀 왔을 때, 그리고 또
아구찜 너무 좋아해 혼자서 아구찜을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열정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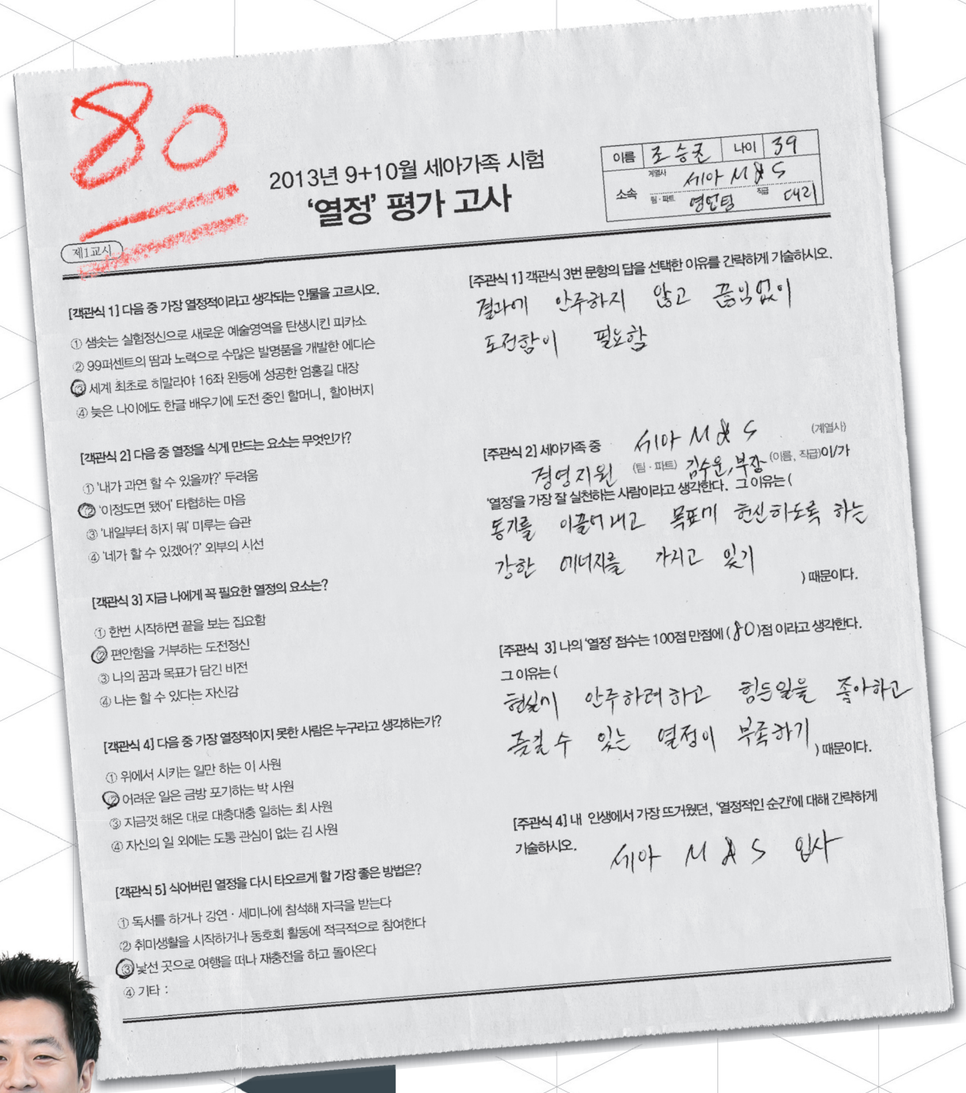
"나의 열정 온도가
100℃로 끓을 때까지!"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사무국
박요한나 사원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삶을 사랑하면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더욱 열심히 살게 되니까요. 저도 제 인생을 더욱 사랑하고 열정의 온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

세아인이 생각하는
열정이란
'라이징 커브'이고
'100℃'이며
'아이디어'이고
'뚝배기'이다.



2013년 9+10월 세아가족 시험
'열정' 평가 고사

80

이름	조승준	나이	39
소속 (계열사)	세아 M&S		
팀 · 파트	영업팀	직급	대리

제1교시

[객관식 1] 다음 중 가장 열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고르시오.
① 샘소는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예술영역을 탄생시킨 피카소
② 99퍼센트의 땀과 노력으로 수많은 발명품을 개발한 에디슨
✓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 완등에 성공한 엄홍길 대장
④ 늦은 나이에도 한글 배우기에 도전 중인 할머니, 할아버지

[객관식 2] 다음 중 열정을 식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움
✓ '이정도면 됐어' 타협하는 마음
③ '내일부터 하지 뭐' 미루는 습관
④ '네가 할 수 있겠어?' 외부의 시선

[객관식 3]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열정의 요소는?
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집요함
✓ 편안함을 거부하는 도전정신
③ 나의 꿈과 목표가 담긴 비전
④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객관식 4] 다음 중 가장 열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이 사원
✓ 어려운 일은 금방 포기하는 박 사원
③ 지금껏 해온 대로 대충대충 일하는 최 사원
④ 자신의 일 외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김 사원

[객관식 5]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은?
① 독서를 하거나 강연 · 세미나에 참석해 자극을 받는다
② 취미생활을 시작하거나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 재충전을 하고 돌아온다
④ 기타 :

[주관식 1] 객관식 3번 문항의 답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함이 필요함

[주관식 2] 세아가족 중 세아 M&S (계열사) 정영지원 (팀 · 파트) 김수용,부장 (이름, 직급)이/가 '열정'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동기를 이끌어내고 목표에 헌신하도록 하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식 3] 나의 '열정'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려하고 힘든일을 좋아하고 즐길수 있는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관식 4]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열정적인 순간'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세아 M&S 입사

30대

"열정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만든다"

세아 M&S 영업팀 조승균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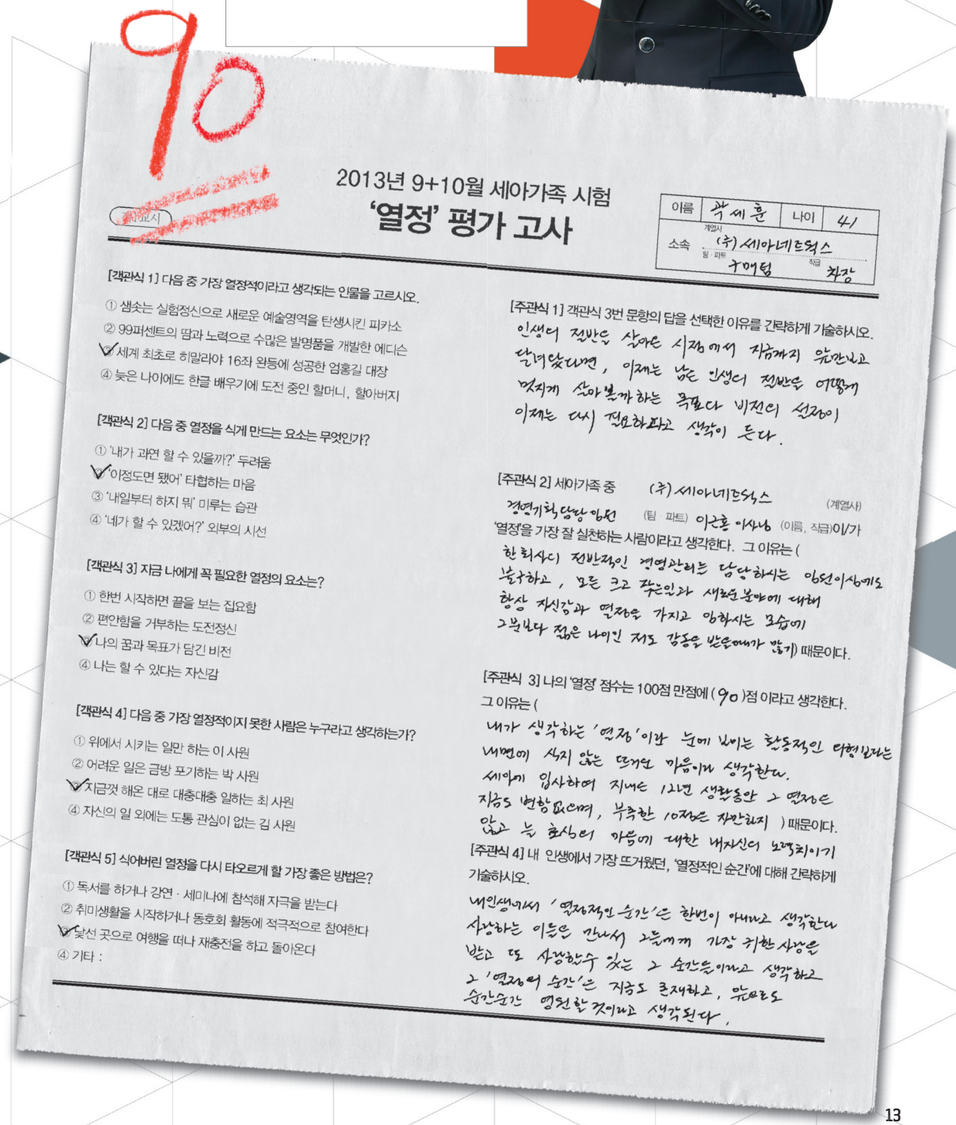
열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냅니다. 저는 열정이 미지근해졌다는 생각이 들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자연 속에서 재충전을 하고 나면 어느 새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이 솟아나거든요.

40대

"뚝배기처럼 오래 지속되는 열정을 위해!"

세아네트웍스 구매팀 곽세훈 차장

양은 냄비는 금세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뚝배기는 끓는 시간이 길지만 한번 뜨거워지면 그 열기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뚝배기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열정맨'이 아닐까요?



2013년 9+10월 세아가족 시험
'열정' 평가 고사

90

이름	곽세훈	나이	41
소속 (계열사)	(주)세아네트웍스		
팀 · 파트	구매팀	직급	차장

제1교시

[객관식 1] 다음 중 가장 열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고르시오.
① 샘소는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예술영역을 탄생시킨 피카소
② 99퍼센트의 땀과 노력으로 수많은 발명품을 개발한 에디슨
✓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 완등에 성공한 엄홍길 대장
④ 늦은 나이에도 한글 배우기에 도전 중인 할머니, 할아버지

[객관식 2] 다음 중 열정을 식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움
✓ '이정도면 됐어' 타협하는 마음
③ '내일부터 하지 뭐' 미루는 습관
④ '네가 할 수 있겠어?' 외부의 시선

[객관식 3]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열정의 요소는?
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집요함
② 편안함을 거부하는 도전정신
✓ 나의 꿈과 목표가 담긴 비전
④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객관식 4] 다음 중 가장 열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이 사원
② 어려운 일은 금방 포기하는 박 사원
✓ 지금껏 해온 대로 대충대충 일하는 최 사원
④ 자신의 일 외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김 사원

[객관식 5]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은?
① 독서를 하거나 강연 · 세미나에 참석해 자극을 받는다
② 취미생활을 시작하거나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 재충전을 하고 돌아온다
④ 기타 :

[주관식 1] 객관식 3번 문항의 답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인생이 전반은 삶아온 시점에서 자꾸까지 앞만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이 전반을 어떻게 살아볼까하는 목표다 비전이 선명이 이제는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주관식 2] 세아가족 중 (주)세아네트웍스 (계열사) 경영기획 담당 임원 (팀 · 파트) 이순형 이사님 (이름, 직급)이/가 '열정'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담당하시는 임원이시면서 날카하고, 모든 크고 작은일과 새로운 분야에 대해 항상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모습이 그룹내 다른 젊은 나이인 저도 감동을 받을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관식 3] 나의 '열정'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열정'이란 눈에 보이는 한물적인 대상보다는 내면에 숨지 않는 뜨거운 마음이 생각한다. 세아에 입사하여 지내온 13년 생활동안 그 열정은 지금도 '변함없이', 부족한 10점은 자만하지) 때문이다.

[주관식 4]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열정적인 순간'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내인생에서 '열정적인 순간'은 한번이 아니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은 만나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할수 있는 그 순간들이고 생각하고 그 '열정의 순간'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Rowing for Your Dream

꿈을 향한 힘찬 로잉 (Rowing), 김지호 코치

김지호 코치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다.
체대생 최초의 연극영화과 복수전공생, 아프리카 케냐 오지학교 최초의 체육선생님, 장애인 조정대표팀 코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조정특집의 주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해설자….
그의 화려한 이력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남모르는 열정이 숨어 있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대학생

김지호 코치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찾았다. 경기장은 전국카누선수권대회 개최로 응원전이 한창이었다. 소녀들이 김지호 코치를 발견하자 꺅,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였다.

"MBC '무한도전' 출연 이후 '연예활동은 안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연예인이 아니라 조정인(漕艇人)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지호 코치는 선수 출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다양한 종목을 접하며 성장했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펜싱을 배웠고, 2학년 때는 카누선수로 노를 잡았다. 중3 시절 체격이 급격히 커지면서 종목을 전환한 것이 조정과의 첫 만남이었다.

"조정은 마라톤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힘든 운동이에요. 정식코스 2km를 전력으로 완주하면 체중이 1.5kg이나 줄어들거든요. 보트 위에 앉은 선수 개개인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여야 하기에 '한 배를 탄 운명'이란 말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가 바로 조정이에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팀원 사이 믿음과 배려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 조정이 뒤로 가는 유일한 종목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거든요."

조정을 좋아했지만 엘리트 선수로만 살고 싶지는 않았다는 김지호 코치. "대입을 앞두고 문득 그동안 운동만 하느라 너무 단조롭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의 20대는 운동만 쫓아온 삶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쉼 없이 도전한 시간이었다. 봉사동아리 회장으로 선출돼 국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연극영화과를 복수전공한 최초의 체대생으로 모교에서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대학 시절의 다양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2008년에는 아프리카 케냐 오지 '콸레' 지역 최초의 체육 선생님으로 일하며 한국을 알리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선수에서 코치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다

아프리카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귀국과 동시에 국내 장애인 조정대표 선수들을 지도하게 된 김지호 코치. "오지에서도 살아서 돌아왔는데 못할 게 뭐 있나(웃음), 패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지도자로서 첫 발을 내딛은 그는 의욕적으로 연습을 시작했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당신이 장애인에 대해 뭘 알아?"하고 선수들이 툭 던지는 한 마디에 상처도 많이 받았다.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엔 많이 당황했어요. 무엇보다 선수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진심을 다해 지도하던 중 김지호 코치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다. "선수들의 마음이 여리고 표현방식이 서투르단 걸 알게 되었죠. 그러자 거짓말처럼 선수들이 먼저 다가오더군요. 그 때부터 서로 깊이 신뢰하고 교감하는 팀이 되었어요."

팀을 이끌며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된 김지호 코치는 2011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조정특집에 출연하게 된다. 무한도전팀은 김지호 코치의 지도 아래 약 5개월 간 훈련을 거듭, 그해 7월 'STX컵 코리아 오픈 레가타' 대회에 참가해 서울대, 와세다대, 멜버른대 등 유수의 대학팀과 경쟁을 펼쳐 최하위인 8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극한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2km를 완주한 그들의 집념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방송 이후 '코치님 덕분에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게 됐고,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조정의 매력을 알렸다는 점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열정 가득한 가로팀에로!
2013. 9. 27.
김 지호

세아 가족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

열정, 꿈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

그의 꿈은 스포츠전문 NGO를 만들어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했고 '독수리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체육봉사도 하고 있다. 또한 비인기 종목인 조정을 홍보하기 위해 조정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로잉유'라는 스포츠클럽을 설립해 누구나 쉽게 조정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치지 않는 비결이요? 가슴 속에 꿈과 열정이 타오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해 연구하고 활동합니다. 물론 저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의 꿈을 생각하면 다시 심장이 끓는 기분이 들어요."

김지호 코치는 가슴을 뛰게 하는 꿈과 비전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작은 꿈이라도 수첩에 적어두고 계속 읽으면 자연스레 열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고,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주위 사람들의 조언은 적절히 수용하되, 열정을 식게 하는 말들은 적당히 걸러 듣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젠가 그 꿈을 닮는다.'라는 말처럼 자신의 꿈과 닮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 김지호 코치. 그가 보여준 '열정 바이러스'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그려갈 꿈도 멋지게 완성하길 기대해 본다.

From Nothing to Something

無에서 有를 창조한 뜨거운 열정

1970년대 수출일화

세아의 지난 53년은 '열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산업 불모지의 땅 위에서 철강제조업을 일으킨 저력,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으로 승부한 것이 그 증거이다. 특히 '국내 최초 강관 수출'과 '강관업계 최초 1억 달러의 수출'이라는 쾌거는 세아의 열정과 도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Be Passionate

체계적인 수출업무 시스템을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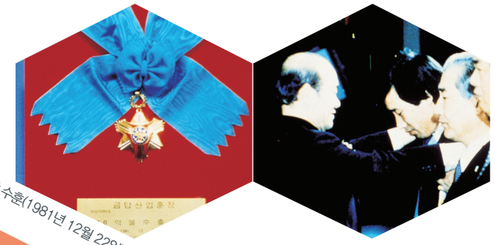
세아제강(전 부산파이프)은 1967년 국내 최초로 강관 수출을 시작하여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강관의 단위를 주판으로 계산하느라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했고, 수출가격을 잘못 산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아제강은 1972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 수출조직을 개편하여 업무환경 개선과 수출물량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자계산기와 텔렉스(인쇄전신기 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전문(電文) 교환 서비스) 도입으로 자유롭게 수출국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격을 산출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출부서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제품 카탈로그와 브로슈어를 수집, 이를 기초로 대한민국 강관업계 최초로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몇몇 대기업 외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드물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아제강의 수출업무 시스템은 단연 획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세아제강은 새로운 수출조직과 시스템의 정비에 힘입어 1973년 처음으로 수출 1천만 달러를 돌파, 1974년에는 수출총액이 3,888만 달러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열정으로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다

강관 수출을 선도해 온 세아제강은 석유파동으로 내수 기반이 위축되자 본격적인 수출로 활로를 열기 위해 1974년 초 수출부 요원을 북미지역으로 파견, 미주시장 개척에 물꼬를 트고 1차 석유파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제2의 공략지역인 중동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된 곳은 바로 쿠웨이트. 1975년 28만 달러의 첫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중동시장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대금 회수를 위해 사막을 가로질러 거래처 대표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전 박대를 당하기도 했으며, 영어 안내판 하나 없는 공항에서 감에 의존하여 비행기를 탄 해프닝도 있었다. 또한 라마단(이슬람교의 금식기간)에는 배고픔을 참으며 사막의 무더위와 싸워야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시골의 잔치마당에서 파이프를 홍보하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수도배관용 6인치 강관 4,500톤 규모의 납품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금탑산업훈장 수훈(1981년 12월 22일)

1억 불 수출의 탑 수상(1981년 12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 부두에 산을 이룬 세아제강(전 부산파이프) 강관

부두에 까만 산을 이룬 수출용 강관

세아제강은 중동 수출이 한창 붐을 이룰 때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 무게인 1만3,000톤 계약에 성공했다. 이는 12인치 강관 한 품목으로 1만톤을 넘는 거대한 물량을 주문받은 것.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파다기(Al Faddagi)社는 강관에 새까만 색을 칠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한 로트(lot)에 6,000톤인 강관을 부두 야적장에 쌓으면 검은색의 거대한 산으로 변해버릴 정도였으며, 햇빛을 받으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 큰 홍보 효과도 보았다고 한다. 경쟁사가 이를 따라했다가 발주처로부터 항의를 받는 웃지 못할 소동도 있었다.

1970년대 수출일화로 인해 세아제강은 1981년 12월에 열린 제18회 수출의날 기념식에서 강관업계 최초로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1억 불 수출의 탑'은 모래바람을 뚫었던 직원들의 열정으로 이뤄낸 쾌거였으며, 선배들의 뜨거운 땀과 눈물은 반세기 세아를 지탱한 힘이 되었다. 세아가 일군 열정의 역사, 세아인의 DNA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이름, 열정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열정이 식어버리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면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이름들을 떠올려 보자.
열정이 재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용광로(鎔鑛爐)

높은 온도로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가마.

용광로 속에서의 첫 과정은 탄소가 일산화탄소로 바뀌는 일이다. 이 때 열이 발생하여 철광석을 가열하고 동시에
산소를 빼앗는 환원반응이 촉진된다. 이 반응은 2,000℃ 가까운 고온에서만 진행된다.
세아에게 용광로란 쇳물을 만드는 가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용광로란 반세기 세아를 탄탄하게 일궈낸 원동력이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이끌어온 세아의 열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강한 철로 탄생하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에서 제련되는 철처럼,
세아인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새벽시장

뜨거운 삶의 열기가 시작되는 곳

새벽 네 시. 포장 수레들이 장으로 들어온다. 시장바닥은 금세 푸릇한 채소며 비늘이 번뜩이는 생선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움직이는 상인들의 모습에서 치열하고 고된 일상을 엿볼 수 있다.
분주하지만 활기 넘치는 풍경과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이 있는 곳.
누구보다 일찍 새벽을 여는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식었던 열정이 다시 끓는 기분이 든다.
'삶이 힘겨울 때 새벽시장에 가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새벽시장은 뜨거운 삶의 열기로 우리를 맞이하는 곳이다.

It's All about Passion

우리시대 열정의 아이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열정이 넘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집중력과 노력, 열정을 무기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열정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네 명의 인생과 그들의 어록을 소개한다.

Be Passionate

01

Oprah Winfrey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The big secret in life is that there is no big secret. Whatever your goal. You can get there if you're willing to work."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은, '큰 비밀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열심히 할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빈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학대를 받았고, 14살 때는 미숙아를 사산하는 등 불행한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운명을 바꾸고 말겠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삶에 당당히 맞섰다. 고등학생 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한 경험으로 1983년 30분짜리 아침 토크쇼를 맡은 그녀는 방송 한 달 만에 시카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진행자로 얼굴을 알렸다. 1986년 프로그램 이름을 '오프라 윈프리 쇼'로 바꾸고 25년 간 진행, '토크쇼의 여왕'으로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말하는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열정은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인물이다.

02

Kim Yuna

피겨 퀸 **김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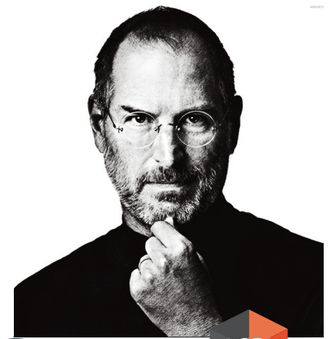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이정도 하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99℃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피겨 퀸' 김연아는 7살 때 스케이트를 접한 후 12살에 대한민국 최초로 트리플 점프 5종을 완성하며 국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는 고질적인 허리와 골반 부상을 딛고 흠잡을 데 없는 연기를 펼치며 자신의 꿈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매일 몸무게의 10배가 넘는 충격을 견디며 수천 번 이상의 점프를 하는 '연습벌레' 김연아. 그녀는 "타고난 대담함도 있지만 그 밑바탕은 노력과 열정에서 나온다. 나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훈련한다."며 '피겨 퀸'이 된 비결을 밝혔다.

"Being the richest man in the cemetery doesn't matter to me. Going to bed at night saying we've done something wonderful... that's what matters to me."

(부자가 되는 일에는 흥미가 없다. 잠자리에 들면서 '훌륭한 일을 해냈구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내게는 의미 있는 것이다.)

완벽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으로 IT혁명을 일으킨 기업가 스티브 잡스. 1976년 허름한 차고에서 애플社를 창업해 일반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고, 마우스를 도입한 새로운 컴퓨터 '매킨토시'를 출시하여 PC 환경에 일대 변화를 일으켰다. 이후 음악을 듣고 소비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아이팟', 휴대전화를 웹 기기로 진화시킨 '아이폰', 태블릿 PC의 문을 연 '아이패드', 어디서든 콘텐츠가 동기화 되는 '아이클라우드' 등을 개발하여 전 세계 유저들을 열광시켰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간 것(Stay Hungry, Stay Foolish.)"이라고 말했다. 항상 꿈을 갈망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직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스티브 잡스에게서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닐까.



03

Steve Jobs

시대를 바꾼 리더 **스티브 잡스**

04

Heo Young-man

만화계의 대부 **허영만**

"철저한 취재와 자료 조사가 없으면 단 한 컷도 그리지 않는다. 사진, 스크랩 자료만 수만 점이 넘는다. 그만큼 많이 메모하고 공부한다. '타짜'를 연재할 때는 지리산 산자락에 숨어 사는 은퇴한 타짜를 찾아가 기술 좀 보여 달라고 떼도 많이 썼다. '꼴' 연재를 위해 3년 6개월가량 관상을 공부했더니 주변에서 "관상 좀 봐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더라.(웃음)"

미술학도를 꿈꿨던 허영만 화백은 집안 형편으로 인해 진학을 포기하고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지난 35년 동안 100여 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한 허영만 화백은 충무로 영입 1순위 만화 원작자이기도 하다. '식객', '타짜', '미스터 손(날아라 슈퍼보드)', '각시탈' 등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젊은 작가들이 득세하는 만화계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자리를 지켜온 것은 그가 성실하고 열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허 화백은 35년 간 매일 새벽 6시에 화실로 출근하며,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발로 뛰는 취재를 계속 해오고 있다. 새로운 소재로 신선한 작품을 창조하는 그가 있어 만화 팬들은 언제나 즐겁다.

Think, Believe, Dream, and Dare

Disneyland

꿈과 환상의 나라,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모두의 낙원입니다.”
1억 2,120만 명. 어느 나라의 인구수가 아니다. 2011년 디즈니랜드에 입장한 관광객 숫자이다.
1955년 개장 이후 전 세계의 인구의 1/10이 방문한 세계 최대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이 ‘꿈과 환상의 나라’를 탄생시킨 것은 한 남자의 꿈과 열정이었다.

작은 사건, 꿈의 시작

“디즈니랜드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모두의 낙원입니다. 이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도전을 맹세할 것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과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955년 7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군 애너하임에 테마파크(놀이공원) 디즈니랜드가 문을 열었다. 개장 연설을 마친 월트 디즈니(Walt Disney, 1901-1966)의 얼굴이 미소로 빛났다. 그의 꿈이 현실로 탄생한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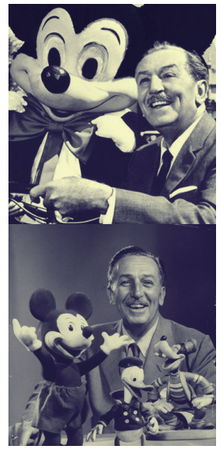
디즈니랜드를 건설한 창업주이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문화예술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히는 월트 디즈니. 그가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게 된 계기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어린 두 딸과 인근에 위치한 놀이공원을 방문한 월트 디즈니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더러운 벤치, 물을 탄 음료수, 지루하기 짝이 없는 놀이기구 등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크게 실망한 월트 디즈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나는 곳,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15년 후 그의 꿈이 담긴 디즈니랜드가 완공되었다.

꿈과 모험, 환상으로 가득한 세상

학습장애를 안고 태어난 월트 디즈니는 수업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졸업 후 광고회사의 미술가로 취직하지만 ‘그림에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한달만에 해고를 당했고, 만화 영화 제작에 번번이 실패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다. 쥐가 우글거리는 창고에서 생활하던 그는 생쥐에게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캐릭터 ‘미키’를 완성, 만화 영화 ‘미키 마우스’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백설공주’, ‘신데렐라’, ‘피노키오’ 등의 수많은 장편 만화 제작에 성공하여 ‘만화 영화의 제왕’으로 이름을 알렸다.

1940년대가 되자 월트 디즈니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테마파크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꿈과 환상의 나라’로 불리는 디즈니랜드이다. 흥미로운 점은 건축에 문외한인 월트 디즈니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는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설계에도 스토리보드를 추가했고, 건물과 동선에 상상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모험의 나라’, ‘개척의 나라’, ‘환상의 나라’ 등의 테마를 구성해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했다. 디즈니랜드에 입장하면 하루 종일 음악회가 열리고 귀여운 캐릭터들이 퍼레이드를 펼치는 등 누구라도 만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길을 따라 걷기만 해도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것이나 동화 속 건물을 실제 크기로 복원해 놓은 것도 관광객이 꿈과 환상을 최대치로 느낄 수 있도록 한 월트 디즈니의 배려 덕분이다.

> “나에게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렇게 꿈을 정한 후 단 한 번도 의심을 가지지 않고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디즈니랜드는 작은 인테리어 소품부터 직원 교육까지 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만큼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모두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은 열정

2005년의 한 통계 자료를 보면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테마파크인지 알 수 있다. 연간 1,400만 명의 관람객이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찾았고, 파리 디즈니랜드에 300만 명, 도쿄 디즈니랜드에는 520만 명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5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즈니랜드는 실패할 사업이니 다시 생각해보라.’며 말렸다고 한다.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를 건설한 비결은 무엇일까? 월트 디즈니는 한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렇게 꿈을 정한 후 단 한 번도 의심을 가지지 않고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디즈니랜드는 작은 인테리어 소품부터 직원 교육까지 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만큼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월트 디즈니의 꿈과 열정으로 탄생한 디즈니랜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만든 ‘꿈과 환상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다.

역사는 현재를 바르게 해석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다. 그달에 있었던 사건이나 발자취를 되짚어 세아가 걸어온 반세기를 알아보고, '100년 기업 세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한다.

1960년 10월 19일

세아의 역사가 시작되다 부산철관공업 탄생

01 부산철관공업 부산공장의 모습(1960년대 초반) 02 저주파 용접방식의 제2호 조관기
03 1963년에 도입된 아연도금 설비

SeAH's Corporate History

중고 조관기로 출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감만동 65번지. 이곳은 세아그룹의 발상지이자 한국 강관산업을 일으킨 요람이다. 부산철관공업의 초기 계획은 독일로부터 최신 설비를 들여올 목적으로 상공부에 수입 허가를 신청했으나, 경쟁 업체의 방해 공작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당시 상공부는 한 · 일 간 무역거래에서 직수입을 막는 대신 재일교포의 재산 반입은 허용하고 있었다. 때마침 일본 가시하라파이프社에서 설비를 대체하기 위해 조관기를 처분한다는 정보를 입수, 부산철관공업은 이를 들여오기로 결정한다. 창업 설비인 '제1호 조관기'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도입되어 초기 강관 생산을 담당하는 주역이 되었다.

부산철관공업 공식 출범

마침내 1960년 10월 19일 세아그룹의 모태인 부산철관공업이 공식 출범하였다. 이색적인 것은 당시 기업명에 주로 사용된 '한국', '세계', '아시아', '극동'과 같은 거창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부산'이라는 출발지명을 사용한 점이다. 이는 '지속성장하여 국가산업을 일으키는 주춧돌 기업을 만든다'는 해암 이종덕 창업 회장의 창업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암은 일본의 고베제강(神戸製鋼), 가와사키제철(川崎製鉄), 미국의 베들레헴 스틸(Bethlehem Steel) 과 같이 지명이름을 사용한 해외 기업의 성공사례도 참고했다.

부산공장의 증설과 성장

부산철관공업은 창업 이듬해인 1961년 2월 감만동 65번지에 있었던 정미소를 조관공장으로 개조하여 창업 설비를 설치했다. '제1호 조관기'를 통해 25.4~38.1mm까지의 소구경 강관이 생산됐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증설했다. 1963년 10월 '제2호 조관기'를 시작으로 뒤이어 '제3호 조관기'를 도입, 1964년에는 3개조 조관라인과 부대시설로 내수 및 수출용 강관을 연 최고 10만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들 1,2,3호 조관기는 다양한 품종 개발로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여 오늘의 세아에 이르는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다.

세아가족은 2013년 1+2월 호부터 새롭게 교체된 CI의 각 요소 별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오남용 사례를 통해 올바른 CI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CI 오남용 사례 I (INCORRECT USAGE)

CI 사용 시 주의사항

세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 CI는 절대 변형해서 사용하면 안 되며 반드시 아래의 베이직 시스템에 규정한 형태를 준수해야 한다.

특별히 하단에 표시한 사례 외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임의로 변형하거나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미지 왜곡을 초래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은 배제하도록 한다.

CI 오남용 사례 I

임의로 색상이 변경된 경우

일부 요소의 크기가 변형된 경우(라이징 커브 크기 변형)

아웃라인(테두리)으로 표현한 경우

임의의 서체로 변경된 경우

비례가 변경된 경우

문장 내에 CI를 넣은 경우

SeAH는 정직한 기업입니다.

AIM RIGHT

목표를 향해 화살을 쏴라!

세아 ESAB 생산기술팀

세아 ESAB을 책임지는 '맥가이버 군단' 생산기술팀이 한 자리에 모였다.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에서 '우리팀의 포스를 전 계열사에 알리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느껴진다. 깊어가는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베스트셀러 서적을 놓고 펼치는 한 판 승부! 그들은 과연 미션에 성공할 수 있을까?

1
목표를 향해 화살을 당기는 생산기술팀의 불타는 눈빛!
2
냉정한 승부 앞에서도 차분하게 화살을 쏜 생산기술팀. 총 40점을 획득했다.

단 한발, One Shot One Kill!

팀미션 양궁 다트 경기를 위해 세아 ESAB 생산기술팀이 창원공장 옥상에 집결했다. 각 세트당 세발씩 쏘는 올림픽 양궁 단체전과 달리 오늘은 한 사람당 단 한발의 화살만 제공, 1세트 후 바로 경기가 종료된다. 또한 생산기술팀 다섯 명이 쏜 점수를 합산해 30점이 넘어야 미션 성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6점 이상을 쏴야만 한다. 단 한번의 실수가 승패를 좌우하는, 꽤 냉정한 승부를 앞둔 생산기술팀. 기합을 넣으며 몸을 푸는 모습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는 그들의 집념을 느낄 수 있었다.

"팀원 모두 양궁 국가대표팀 못지않은 강심장이라 잘 해낼 겁니다. 우리팀의 포스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화살을 명중시킬 수 있는 법!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을 적어 목표로 걸고 경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의 목표와 팀미션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팀원들의 표정이 제법 비장해 보인다.

이성국 연구원
- 생활탁구 승격
제 생활의 활력소 생활탁구!
6부에서 5부로 승격하고 싶어요.
매일 매일의 연습도 쉬지 않을 계획이랍니다~

염동호 연구원
- 금연 & 단풍 산행 등
올 가을에는 설악산으로 단풍 산행을 떠나고 싶어요.
5자 감성돔 낚시와 금연,
금주에도 도전하고 싶네요.

서성호 과장
- 일주일 중 하루는 가족과 보내기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일주일 중 하루는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네요.

세아 ESAB 생산기술팀의 '올해가 가기 전 꼭 이루고 싶은 목표' 大공개

3

손진수 사원
- 금주 & 운동하기
자꾸만 나오는 뱃살! 금주와
운동이 시급한 시점이네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곽희진 팀장
- 10km 마라톤 완주
가을에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10km를 완주하는 것이 목표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네요.

생산기술팀의 경기 전략은
초탄필추(初彈必追) 즉, '첫발에 반드시
맞춘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생산기술팀의 살림꾼으로 불리는 서성호
과장이 스타트를 끊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마음으로 첫 순서를 자청한
서성호 과장이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나보다. '탕!' 경쾌한 소리를 내며
날아간 화살이 9점에 꽂혔다. 기분 좋은
출발에 박수가 쏟아졌다.
다음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팀을
이끄는 곽희진 팀장의 차례. 평소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이 매서운 눈빛으로
과녁을 바라보는 곽희진 팀장. 심호흡을
하고 활시위를 당겼다. 정중앙의 '퍼펙트
골드존'을 살짝 스쳤지만 정확한 10점!
팀원들이 환호성이 터졌다.
이어 생산기술팀의 성실맨 염동호
연구원이 8점을, 공구 제작의 달인
이성국 연구원이 7점을, 애교 넘치는
막내 손진수 사원이 6점을 맞추며 총
점수 40점을 획득! 생산기술팀은 '한번
잡은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고 만다'는
근성으로 목표 점수 30점을 가볍게
넘기며 미션을 완수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생산기술팀의 키워드, '도전'과 '팀워크'

세아 ESAB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종합용접기업'을 목표로 용접재료 및
용접설비를 생산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Flux
Cored Wire · FCW) 제품을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조선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다양한 용접봉과 용접재료를
개발해 중공업 · 자동차 · 건설업계
전반에 공급하고 있다.
연구소 소속의 생산기술팀은 신제품
개발, 제조 공정 및 설비 개선, 신공정
개발 프로젝트, ESAB社와의 기술 교류
등을 담당하는 팀이다. ESAB SeAH
Yantai 공장 건설, 한국번디와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경량화 스풀 개발 완료 등
수많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저력과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아
세아업적상과 한마음대상 등 다수의
상을 휩쓸기도 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유명한 생산기술팀. 그들은 '우리팀이
도전할수록 품질이 좋아지고, 매출도
올라간다.'는 긍지를 안고 격의 없이
자주 대화를 나눈다. 20년 동안 연구한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는
곽희진 팀장, 불도저처럼 업무를
추진하는 서성호 과장, 만능 제작 기술을
보유한 이성국 연구원, 어떤 난제도
꼼꼼하게 해결하는 염동호 연구원,
궂은일도 마다 않는 손진수 사원은
"우리팀은 가족 이상"이라고 입을
모으며 그들의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했다. 생산기술팀의 팀워크와
도전정신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권취
자동화 프로젝트'이다. 2009년 완성된
이 프로젝트는 경량 스풀 적용으로 권취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매년 5억
이상의 원가를 절감한 '효자 프로젝트'로
그 몫을 톡톡히 해냈다.

맥가이버 군단, 독서 삼매경에 빠지다

생산기술팀의 미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편집실에서 베스트셀러 서적 5종을
준비했다. 신제품을 개발과 국제 특허
출원 진행으로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던 생산기술팀에게 책과 함께 하는
여유를 선물하고 싶어서다.
인문, 자기계발, 에세이 등 다양하게
준비된 도서를 고른 팀원들은 이내 독서
삼매경에 푹 빠졌다. "그동안 업무
핑계로 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팀미션도 성공하고 여유롭게 책도
읽으니 마음이 풍요로워진 기분이에요."
최상의 팀워크로 고난이도 팀미션을
멋지게 성공한 생산기술팀.
세아 ESAB의 공정과 제품을 책임지는
'맥가이버'인 그들이 'ONE TEAM, ONE
SPIRIT, ONE GOAL(하나의 팀, 하나의
정신, 하나의 목표)'라는 비전을 달성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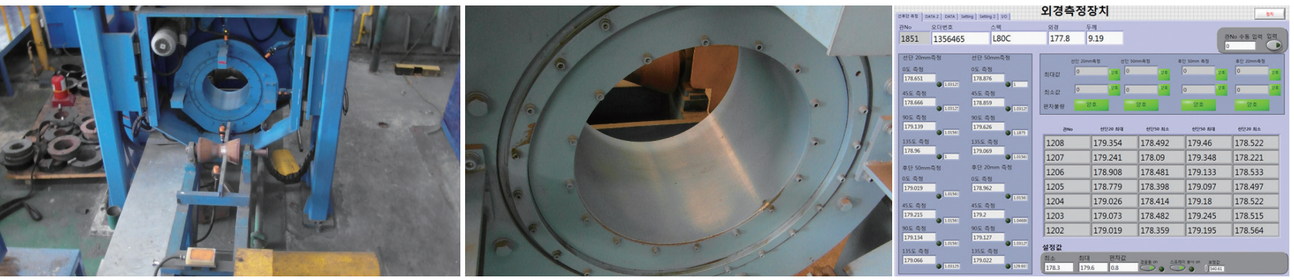
4

5

3
독서의 계절 가을과 함께 할
다양한 서적들.
4
세아 ESAB 야외 정원에서 이
야기꽃을 피우는 다섯 남자들.
5
생산기술팀, 오늘 미션 대성공!

세아제강이 강관제품의 정확한 외경 측정이 가능한 외경측정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외경 데이터 이력관리, 측정의 객관화, 원주 방향의 연속적 외경의 측정, 수작업 대비 측정 시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글 :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용접기술파트 임재정

세아제강, 외경측정장치 개발로 품질 신뢰도를 높이다



세아제강이 개발한 외경측정장치와 LabVIEW를 이용한 측정 프로그램

버니어 캘리퍼스 측정의 단점

강관제품은 외경 진원도 두께를 측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품질 고도화로 연결된다. 세아제강은 기존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외경 검사를 실시해 왔다. 사람의 손을 이용해 외경을 측정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측정 연속성 감소 및 검사자의 주관에 따른 오차 발생, 불필요한 시간 소요 등의 단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용접기술파트는 외경 측정의 정밀성을 향상시키고 단시간 내 연속적인 외경 측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측정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경측정장치 개발에 착수했다.

2차원 변위 센서를 적용하여 정밀성을 높이다

외경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변위 센서'를 이용한 측정과 'CCD'방식을 이용한 측정, '비전카메라'를 이용한 측정으로 나눌 수 있다. 'CCD'와 '비전카메라' 방식은 대형 관경을 포함한 다양한 외경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변위 센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외경측정장치 개발에서는 '2차원 변위 센서'를 적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단순 거리만 측정 가능한 1차원 센서와 달리, 2차원 센서는 거리를 포함한 최대값, 최소값, 편차 등 측정 대상체의 다양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으며 측정 범위 내에 정밀한 파이프 레벨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블루 레이저 센서'를 채택하여 철강소재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고정도 측정을 유도했다.

명품화에 도전하는 세아제강

세아제강은 LabVIEW를 이용한 측정 프로그램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4포인트(0°, 45°, 90°, 135°)의 외경 치수를 표시할 수 있으며, 측정된 외경의 최대값과 최소값, 편차 등을 활용해 진원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파이프의 외경 치수를 저장하여 파이프 외경 이력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개발된 외경측정장치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연간 2억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아제강은 외경측정장치 및 프로그램 개발 성공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과 '명품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Vietnam Steel Pipe 창립 20주년 및 사업 연장 기념식이 개최됐다. 한국과 베트남 최초의 합작법인으로서 신뢰를 쌓아온 역사를 재조명하고, 다가올 20년을 향해 도약할 것을 약속했다. 글 : 세아제강 경영기획팀 이원석

Vietnam Steel Pipe 창립 20주년 및 사업 연장 기념식 개최

새로운 20년을 향한 Vinapipe의 도약

Vinapipe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세아제강과 베트남 국영철강회사 VNsteel이 50%씩 지분을 투자한 유한합작회사 Vietnam Steel Pipe (이하 Vinapipe)가 10월 1일 베트남 하이퐁 펄리버호텔에서 창립 20주년 및 사업 연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세아제강 이휘령 사장 및 전대주 주베트남 대사, 베트남 상공부 레 즈옹 꽝 차관, 하이퐁 인민위원회 즈응 앙 디엔 위원장 등 많은 귀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Vinapipe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축사 중인 세아제강 이휘령 사장

한국-베트남 최초의 합작법인 Vinapipe

Vinapipe는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문호 개방 이후 양국이 맺은 최초의 합작법인이자, 한-베 경제협력의 첫 단추를 꿴 상징적인 회사이다. Vinapipe는 지난 20년 간 45만톤의 강관을 생산하여 건설 현장 및 산업 분야에 공급함으로써 베트남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일조해 왔다. Vinapipe는 일찍이 ISO 9002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했으며, 2012년에는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에도 성공했다. Vinapipe는 베트남의 발전에 기여하고 주변 환경도 보호한 '좋은 기업'으로서 지난 20년 간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아 왔다.

신뢰와 우정으로 향후 20년을 약속하다

1997년 발생한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베트남의 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Vinapipe의 두 모회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했고, 공통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Vinapipe 설립 당시 46억동이었던 매출이 2012년 5,435억동을 기록, 매출 118배 증가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장은 직원들에게 성취감과 안정감을 제공하여 이직률을 저하시켰고, 이는 곧 Vinapipe의 발전 동력이 되었다. 특히, 금년 4월에는 두 모회사의 우정과 신뢰를 인정받아 하이퐁시(市)로부터 2033년까지 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20년 비즈니스 라이선스 연장 허가'를 받았다. 양측 회사는 자본증자를 통해 제2의 창업을 도모할 예정이며, 철강 분야에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여 '아시아의 잠룡(潛龍)'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Can You Solve the Problem?

'작은 단서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찾는다.
어떤 미스터리한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한다.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불세출의 명탐정 셜록 홈즈를 설명하는 말이다.
한국번디 연구2팀 김종서 과장을 보면 셜록 홈즈가 연상된다.
김종서 과장은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발 빠른 행동력으로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이다.

명탐정 셜록 홈즈처럼 문제를 해결하다!

한국번디 연구2팀 김종서 과장

한국번디의 '기어'가 되고픈 남자

영국신사의 필수품 파이프 담배, 빳빳하게 깃을 세운 트렌치 코트, 지적인 느낌이 드는 뿔테 안경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활용해 추남(秋男)으로 변신한 김종서 과장. 스타일링을 마치고 카메라 앞에 서자 스튜디오 안은 어느새 낭만적인 가을 분위기로 물들기 시작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가을 남자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서 과장은 의상을 갈아입을 때만 해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근심스런 표정을 짓더니 사인이 떨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조명 아래 장시간 진행된 촬영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찡그리지 않았던 김종서 과장. 다양한 소품과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에서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번디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모두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선후배를 대신해 표지 모델로 선발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촬영장에 왔습니다."

자신을 상징할만한 물건으로 자동차의 '기어'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기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쇳덩이에 불과하지만, 자동차에 장착되면 엔진의 힘을 바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개인의 힘을 조직의 힘으로 전환시키고, 조직의 힘을 개인의 힘으로 전환시키기는 기어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업무 지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각 부서와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는 등 한국번디의 '기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Hot 뜨거! 연구2팀의 열정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후 한국번디에서 직장생활을 시작, 어느덧 입사 12년 차에 접어드는 김종서 과장. 그는 한국번디에 입사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다.

“꿈이 과학자였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으니 어린 시절의 꿈이 이뤄진 셈이죠.”

한국번디 기술연구소는 총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1팀은 소구경 강관(튜브)를 이용해 가전 및 냉공조 제품용 냉매 사이클 부품을 개발하는 일을, 연구3팀은 자동차용 튜브 가공 및 Sub 부품 개발과 열교환기 부품을 개발한다. 연구2팀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소재가 되는 튜브를 만들고, 튜브 생산을 위한 최상의 공정을 개발하는 팀이다. 김종서 과장은 연구2팀에서 신소재 개발, 튜브의 표면처리,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사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팀의 개발 방향에 따라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기술 트렌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업무에 임합니다.”

연구2팀은 수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세계 최초로 소구경 강관에 갈바륨을 적용한 NSG를 개발하여 2006년 세계 유수의 제품을 제치고 히트상품 대열에 당당히 올리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NSG를 개발하기 전 6개월 동안은 팀 전체가 휴일을 반납하는 등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며 프로젝트에 매달렸다고 한다. 또한 선진국에서 독점적으로 기술을 보유한 차세대 트렌드 PA12도 국산화에 성공하며 연구2팀의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어떤 프로젝트도 쉽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연구2팀 전체가 열정으로 똘똘 뭉쳤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심재평 팀장님 이하 모든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열정을 다해 한 걸음씩 걸을 것

김종서 과장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품질로 다시 한 번 세계 시장을 제패하겠다는 각오로 최근 출시된 EPF를 알리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해외 설비 신설, 신제품 연구, 기술 교류, 곧 태어날 공주님을 맞을 준비 등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한 걸음씩 내딛을 계획이다. 자신의 업무에 긍지를 느끼며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한국번디의 ‘기어’ 김종서 과장. 그 어떤 문제도 명쾌하게 풀어내는 명탐정 셜록 홈즈처럼, 한국번디 연구2팀의 목표도 멋지게 달성해주길 기대한다.

어느덧 입사 12년 차에 접어드는 김종서 과장. 한국번디에 입사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다. “꿈이 과학자였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으니 어린 시절의 꿈이 이뤄진 셈이죠.”

세아제강은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뉴질랜드에 첫 발을 내딛은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기홍 대리. 그의 뉴질랜드 체험기를 소개한다.

글 :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김기홍 대리

열정가이의 좌충우돌 뉴질랜드 체험기

신혼의 단꿈과 함께 시작된 해외연수

작년 11월 뉴질랜드 해외연수가 결정이 되고 나서 부랴부랴 결혼 준비에 돌입했다.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번갯불에 콩 볶듯' 결혼식을 올린 후 올해 1월 드디어 뉴질랜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출국 직전 2개월 동안 업무 인수인계와 연수 준비, 결혼 진행 등으로 종종 패닉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모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나의 해외연수는 그렇게 달콤한 신혼의 꿈과 함께 시작되었다.

살인적인 뉴질랜드의 물가

장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 부부가 지낼 오클랜드(Auckland City)에 도착했다. 오클랜드는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자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모이는 대도시이다. 우리 부부는 플랫(Flat · 우리나라의 연립과 비슷한 형태. 뉴질랜드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한 아파트에 여러 명이 함께 사는 플랫을 선호함.)을 하기로 결정하여 한국 부부와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못 돼 내린 결론은 "도저히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 나가자!"였다. 결국 어학원 옆에 위치한 작은 원룸을 구했고, 드디어 진정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 물가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낙농업, 교육, 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는 살인적으로 비싼 편이다. 내가 거주하는 원룸도 매주 $300 이상을 지불하는데, "이 돈이 한 달이면…." 하는 생각에 속이 쓰린 적도 있었다. 단, 골프 필드는 18홀에 $30~40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편이다.

경이로운 대자연의 나라

뉴질랜드를 '대자연의 나라'라 부르는 데 나 역시 100% 동감한다. 오클랜드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이히아(Paihia)라는 도시에서 배로 이동하면 베이 오브 아일랜드(Bay of Island)가 나타난다. "에이, 우리 고향 포항 앞바다랑 다를 게 없네."라고 생각했던 나는 보트 옆에서 춤추는 돌고래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90마일이나 되는 모래사장(90 Mile Beach)을 물 속 안팎을 가로지르며 달렸던 스릴, 뉴질랜드 북섬 최북단에 위치한 등대 케이프 레잉가(Cape Reinga)에서 느낀 바닷바람도 내 가슴을 뛰게 했다.
뉴질랜드는 강태공들에겐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낚싯대를 던졌다하면 팔뚝만한 고기들이 올라오며, 미끼 또한 정어리나 오징어를 사용할 정도로 스케일이 크다. 카와이(고등어과), 돔 등을 잡아 바로 회를 떠 소주와 꿀꺽. 한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맛이었다.

From Auckland, New Zealand

회사에서 온 연수인 만큼,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또한 세계인들과 우정을 쌓으며 글로벌 감각도 몸에 익힐 수 있었다. 이제 두세 달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쉬움이 많지만 앞으로 마음껏 영어로 말하고 여행도 다니며 추억을 만들 계획이다. 뉴질랜드 해외연수 기회를 마련해 준 세아제강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정적으로 연수를 즐기고 회사로 복귀하겠다.

여름보다 뜨거운 젊음!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하계수련회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하계수련회가 8월 21일부터 2박3일에 걸쳐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32명의 장학생들은 '꿈의 기록' 촬영, 한라산 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자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사무국 박요한나

Summer Retreat in **Jeju**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진행된 하계수련회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제21기 하계수련회가 8월 21일부터 2박3일 간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각자의 꿈과 목표를 안고 전국에서 모인 32명의 장학생들은 출발 전부터 수련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표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이번 하계수련회는 다채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깨고자 장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레크레이션은 '청춘이란 서로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것'이라는 공식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각자의 꿈과 목표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꿈의 기록'은 장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동기가 되었다.

둘째 날 진행된 한라산 산행은 기상악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2명의 장학생들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백록담까지 오르지는 못했으나 가파른 산을 서로 발맞추며 걸었던 경험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진한 동료애를 느끼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고 서로의 꿈을 격려했던 2013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하계수련회. 이번 하계수련회가 장학생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뜨거운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세아처럼 뜨거운 열정을 체험하다

하계수련회 참석 소감

2013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하계수련회에 총 32명이 장학생이 참여했다. 그들은 저마다 어떤 꿈과 목표를 안고 돌아왔을까? 장학생들의 참석 소감을 들어본다.

참석 소감 01

세아, 그 자랑스럽고 든든한 소속감

세명대학교 한의학과 최수지

작은 요트를 타고 혼자 태평양을 횡단한 사람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항해 도중 가장 괴로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철저히 혼자라는 고독이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는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해 줄 조직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올해 25살이 된 저도 여러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입니다.
저는 여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수련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수련회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터라 더욱 설레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한 번도 올라보지 못한 한라산을 장학생들과 함께 오른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대가 됐습니다.
작년에 저는 20기 신입 장학생 신분으로 처음 수련회에 참가했었는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1기 후배 장학생들이 수련회에 합류했습니다. 선후배들이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조를 짜 주신 재단의 배려 덕분에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또 알찬 레크리에이션과 쉼 없는 수다로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한라산 등반을 위해 성판악 코스에 도착했습니다. 장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르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가파른 길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힘든 마음에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진달래 대피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한라산은 날씨 변화가 심해서 경치를 볼 수 있는 날이 일 년 중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흐린 하늘이 다시 청명해지기를 기대했으나 곧 세찬 비가 내려 하산해야만 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보니 한라산은 마치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산행을 했듯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준다면 인생에 있을 어려운 일도 잘 헤쳐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은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인연이 되었지만 그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장학생 모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여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환원했으면 합니다.
저는 작은 요트를 타고 혼자서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트가 멈췄을 때 서로의 요트를 고쳐줄 수 있는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친구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세아라는 자랑스러운 소속감이 오늘도 저를 든든하게 합니다.

참석 소감 02

세아의 열정을 품은 장학생들과의 잊지 못할 추억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구소영

이번 하계수련회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기 직전까지 시험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공항에 도착해서 바라본 제주도의 바다는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만난 장학생들은 '세상을 아름답게'하는 세아의 열정과 희망을 품은 멋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한라산 등반과 '꿈의 기록'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던 저에게 8시간의 한라산 등반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을 의지해 산을 타면서 혼자서는 절대 오를 수 없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상악화로 정상에 오르진 못했지만, 대피소에서 비를 맞으며 먹었던 점심, 안개가 자욱이 끼었던 오름에서 함께 빌었던 소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꿈의 기록' 프로그램에서 1년 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카메라 앞에서 촬영할 때는 너무나 떨렸지만, 나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다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학생 모임 명칭은 '처럼'입니다. '처럼'이라는 단어에 우리 모두의 꿈에 담겨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처럼'이 아닌 스스로에게 떳떳한 '처럼'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번 하계수련회에서 배웠던 열정을 되새기며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멋진 장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석 소감 03

서로의 꿈을 응원했던 시간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용선

이번 여름 저는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이후 처음 가보는 제주도라 비행기 안에서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꿈의 기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들의 꿈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장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난생 처음 등반한 한라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산행 중간에 기상악화로 진달래 대피소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만, 부상자 없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챙겨준 협동심 덕분이었습니다. 2박3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꿈을 찾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우리들은 다시 만나서 서로가 이룬 꿈의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세아의 슬로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게 해주신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세아제강

본사 배식 봉사활동 진행

9월 26일 세아제강 본사 직원 17명이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가졌다. 6월에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함께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동안 배식 봉사활동은 5월 8일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6회 더 진행될 예정이다. 세아제강은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산판재공장 합동 소방훈련 실시

9월 13일 군산판재공장과 군산소방서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군산판재공장 직원 50명과 군산소방서 직원 5명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한 화재 현장에서 신속히 화재를 진압했다. 군산판재공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계기로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화재 없는 사업장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판재공장 사랑의 봉사활동 실시

군산판재공장이 9월 28일 노인 요양시설 '함께하는 공동체'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에 참여한 19명의 직원들은 난방용 화목 절단과 진입로 보수를 도왔다. 군산판재공장은 계속해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순천공장 예광마을 봉사활동 실시

9월 28일 순천공장이 노인 요양시설 '예광마을'을 방문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17명의 직원들은 화단 정리, 김장용 고추 다듬기, 식당 대청소에 참여해 부족한 일손을 도우며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순천공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신기술인증 획득

8월 29일 세아베스틸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개최한 '제 2회 신기술인증 수여식'에서 기계 · 소재 분야 신기술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아베스틸이 획득한 신기술인증은 세아베스틸과 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연구 · 개발하여 얻은 성과로, 합금원소(Mo, B) 첨가 및 고주파 열처리를 통한 미세입자를 갖는 고내구강 제조 기술이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금번 신기술인증 획득으로 자동차용 특수강봉강 제조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 체결

세아베스틸이 9월 5일 군산경찰서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기찬 지원본부장과 이동민 전북 군산경찰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희망복지 박람회 봉사활동 실시

세아베스틸 대형압연 정정파트 C조와 다물단이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2013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대형압연 정정파트 C조와 다물단은 설거지 및 행사진행,

기타 다양한 봉사를 펼치며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왔다. 한편, 제강팀 두동현 기감은 지역의 복지 향상에 헌신한 점을 인정받아 군산시장 유공자 상을 수상했다.

섬마을에 사랑의 정수기 기탁

세아베스틸이 8월 30일과 9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용 정수기 19대를 옥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번 행사는 세아베스틸이 진행하는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섬마을에서 식수난을 겪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됐다. 세아베스틸은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나눔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사랑의 쌀 기부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이 9월 11일 경북 시각장애인 연합회에 쌀 140포(5Kg)를 전달했다. 세아특수강은 매년 명절마다 임직원 모금과 회사 지원금으로 후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사랑의 라면'에 이어 올해는 '사랑의 쌀'이 전달됐다. 포항공장에서 기탁한 사랑의 쌀은 포항지역의 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됐으며, 경북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지속적인 물품 후원을 펼쳐온 포항공장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충주공장 금연 공장 캠페인 시행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이 9월부터 깨끗한 사업장을 만들고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연 공장 캠페인'을 시행했다. 충주공장은 금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이동 금연 클리닉을 주 1회 운영하는 등 금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충주공장은 금연 공장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충주공장이 10월 13일 서울사무소와 연합하여 2013년 세아특수강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세아특수강과 협력사의 임직원 및 가족 350명이 참석한 이번 체육대회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레크리에이션이 준비 돼 큰 호응을 얻었었다. 참석자들은 "성별과 세대의 벽을 넘는 화합의 장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국번디

평택공장 추석맞이 송편나눔 봉사

9월 5일 한국번디 평택공장이 부락복지회관에서 주최하는 '꿍떡꿍떡! 송편나눔, 들썩들썩! 우리마을'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500세대에게 기금을 전달한 후 송편빚기과 떡나눔 행사 진행을 도왔다. 한편, 평택공장 직원들은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떡메치기 등 부대행사에 참가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동차 가공 교육 실시

한국번디 평택 본사에서 9월 2일에서 13일 동안 자동차 가공 교육을 실시했다.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에서 파견된 13명의 직원들도 참여한 금번 교육은 현장 방문 및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번디 평택 본사는 자동차 가공의 전체 프로세스를 지도하여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왔다. 또한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한국번디 광주공장 등 주요계열사를 방문하여 업무와 관련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광주공장 가전제품 전달식

한국번디 광주공장이 9월 16일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가전제품을 기증했다. 광산구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조손가구, 장애인가구에 약 30대의 세탁기, 냉장고 등이 전달됐으며, 이번 기증은 광주공장 사내 봉사활동 동호회를 통해 기부된 금액으로 마련됐다. 한국번디 광주공장은 지난 2003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 재가 방문봉사, 목욕봉사,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등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

세아 ESAB

기업현장 방문프로그램 실시

세아 ESAB이 8월 22일 중 · 장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방문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본 프로그램은 중 · 장년층의 일자리 발굴 및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행사로, 회사소개 및 채용설명회, 공장투어 순서로 진행됐다. 세아 ESAB은 금번 프로그램이 중 · 장년 구직자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아 M&S

임금협약 조인식

세아 M&S가 2013년 임금협약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9월 26일 진행된 2013년 임금협약은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노사 간 상호 합의에 이르렀다. 세아 M&S 노사는 금번 협약을 계기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발전에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세아 M&S는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벤치마킹 실시

세아 M&S가 9월 30일과 10월 4일 노사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우수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벤치마킹 대상 기업은 세아베스틸과 세아제강으로 선정되었으며, 공장견학과 간담회 등이 진행돼 세아 M&S가 추진 중인 혁신 활동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세아로지스

KOSHA18001 인증 획득

세아로지스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 22일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도원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KOSHA 18001'은 재해예방과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자율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인증이다. 세아로지스는 인증 획득을 계기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힘 쓸 계획이다.

SeAH People News

사우동정

세아홀딩스

결혼
김철홍 미래전략파트

출산
심한구 인사기획파트

세아제강

입사
박지연 창원 업무지원팀

결혼
도영원 본사 실수요2팀
이경근 군산강관 업무지원팀
선민석 군산강관 업무지원팀

출산
이춘우 포항 생산1팀
신영남 순천 물류팀
이정호 군산판재 품질경영팀

조의
이유란 본사 수출3팀 (부친)
황형석 포항 생산3팀 (장인)
김정제 순천 품질경영팀 (장인)
정다훈 군산판재 업무지원팀 (모친)

세아베스틸

결혼
임재철 연주팀
강명균 단조설비팀
정상현 수출팀
최윤영 부산영업팀
차상현 소형압연팀
이서현 단)품질보증팀

조의
강태욱 대형압연팀 (부친)
송기정 연주팀 (부친)
유현영 2차가공팀 (부친)
남무선 연주팀 (부친)
김재진 소형압연팀 (부친)
안문준 대형압연팀 (모친)
최광영 제강팀 (모친)
임병갑 자재관리팀 (모친)
황인률 대형압연팀 (모친)
김동력 압연설비팀 (장인)
이영국 단조팀 (장인)
양희경 회계팀 (장인)
송유택 제강설비팀 (장모)

세아특수강

입사
진강원 포항 생산팀
윤예지 서울 봉강판매1팀

결혼
이경원 부산 부산영업소
최성민 포항 생산팀
김진식 포항 생산팀

출산
정재웅 서울 기획인사파트
문병갑 서울 기획인사파트
권영훈 포항 생산팀
이준호 포항 생산팀

조의
조상묵/조대묵 포항 생산팀 (백부)
김성원 포항 생산팀 (부친)
김종근 포항 생산팀 (형제)
하상용 포항 생산팀 (백부)
김원호 포항 생산팀 (장모)
황기원 포항 생산팀 (장인)
이동헌 대구 대구영업소 (누나)
이종탁 충주 설비팀 (부친)

한국번디

결혼
조훈 광주 생산팀

출산
공용표 평택 생산팀
정성주 평택 영업2팀

조의
김종대 평택 생산팀 (모친)
임은림 평택 생산팀 (백모)
문병국 평택 업무지원팀 (장인)
장소라 평택 QM팀 (부친)
서정탁 평택 생산팀 (조부)
김재홍 광주 생산팀 (숙부)

세아 ESAB

입사
정재헌 생산팀

결혼
김지건 설비관리팀

세아메탈

입사
김강현 서울 수출팀
이동규 원주 생산설비팀

결혼
곽대훈 서울 수출팀

출산
지승배 원주 품질경영팀

세아 E&T

입사
서진호 터보 생산팀

결혼
최재일 터보 영업팀

출산
김현식 터보 생산팀

조의
이명희 터보 연구개발팀 (장인)

세아 M&S

입사
조승균 영업팀

결혼
유근동 생산팀

출산
조원준 생산팀

조의
박명호 생산팀 (부친)

세아로지스

입사
김호찬 TPL팀
임세원 창녕영업소
손국현 부산물류센터

결혼
최재환 군산운영팀
신동주 수출입통관팀

출산
이효인 국제물류팀

Quiz

Trivia Quiz

세아가족 9+10월 호 퀴즈를 맞춰라!

독자 여러분, 세아가족 9+10월 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답을 적어서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세아가족 9+10월 호 퀴즈

문제 1〉 1970년대 세아가 처음으로 수출의 문을 열었던 중동지역 국가는?

① 쿠웨이트 ② 이란
③ 이라크 ④ 시리아

문제 2〉 강관제품의 정확한 외경 측정을 위해 세아제강이 개발한 것은?

① 외경측정장치 ② 내경측정장치
③ 전면측정장치 ④ 후면측정장치

퀴즈의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자

강미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김성우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전경욱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김영희	전남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김수곤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전수진	부산시 금전구 장전동
김재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김옥남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홍경석	대전시 서구 탄방동
		임형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Epilogue

Hello SeAH Family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 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문의 : chris.ahn@seah.co.kr
02-6970-0093

Message

〈세아가족〉 독자의견

김수곤 사보가 더욱 알차게 변했네요. '정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답니다. 다음 호가 더욱 기대되는 세아가족!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임형태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표지의 파란색을 보는 순간 시원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아가족을 통해 아름다운 가을의 향기도 빨리 느껴보고 싶네요.

홍경석 7+8월 호를 통해 세아의 근간인 '정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직은 언제나 빛나는 보석입니다! 세아의 정도경영(正道經營)처럼 말이죠.

〈세아가족〉 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사운영팀(본사)	**김동기**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이상기**	세아 E&T 화공사업지원팀
이찬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김민구**	세아 M&S 서울사무소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특수관공장)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김재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판재공장)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관리팀(평택)	**김미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이경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이송이**	한국번디 품질경영팀(광주)	**김승렬**	드림라인 사업기획팀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진승래**	세아 ESAB 경영지원팀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본사)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SECRET NOTE

다양한 방법으로 '열정'을 지속하다

열정의 마음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입사원 시절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세아특수강 기술개발팀 오병곤 대리의 시크릿 노트를 공개한다.

세아특수강 기술개발팀 오병곤 대리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특수강 기술개발팀에서 근무하는 오병곤 대리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통 2, 4년 차가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물론 겪었던 일이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열정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정도 지속하고 슬럼프도 극복하는 저만의 노하우, 한번 들어보실래요?

STEP 1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자기만의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보세요. 삶에 대한 열정과 목표의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STEP 2 아이처럼 항상 웃어라!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 정도 웃는 반면, 어른들은 겨우 25번을 웃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농담을 건네고 누군가를 웃겨보세요.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될 거에요. 웃음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열정을 잃지 않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STEP 3 충분히 쉬어야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실패는 자본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에너지 부족 때문일 경우가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쉬는 20분을 이용해 낮잠을 자보세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쉬는 것만으로 열정이 재충전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참! 낮잠을 잘 때 알람을 맞추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열정을 실천하는 오병곤 대리처럼
우리 세아가족들도 나에게 맞는 방법을 이용해 열정을 지속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아가족〉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아그룹의 사보입니다.

※ 연락처를 꼭 기입해주세요.

보내는 사람

세아가족

우표

이름

주소

전화번호

□□□-□□□

PASSIONATE
09+10
SEP +OCT 2013

받는 사람

SeAH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세아가족〉 편집실

1 2 1 — 8 4 1

퀴즈정답

세아가족 9+10월 호 퀴즈

문제 1) 1970년대 세아가 처음으로 수출의 문을 열었던 중동지역 국가는?

① 쿠웨이트 ② 이란
③ 이라크 ④ 시리아

문제 2) 강관제품의 정확한 외경 측정을 위해 세아제강이 개발한 것은?

① 외경측정장치 ② 내경측정장치
③ 전면측정장치 ④ 후면측정장치

참여하고 싶은 칼럼 혹은 추천하고 싶은 사우

가장 재미있었던 칼럼

사보를 읽은 소감